

# 아파트 공화국과 시기심의 민주주의

: 박완서의 개발독재기 소설을 중심으로

김은하\*

## 차례

1. 아파트, 혁명 한국의 기념비
2. 근대성과 젠더: 속물 엄마의 신분이동 이야기
3. 삶을 균질화하는 아파트와 로열 박스 속의 여자들
4. 맺음말

### <국문초록>

한국에서 아파트는 단지 주거의 한 유형이 아니라 경제적, 심리적 현상이다. 한국을 어디서나 아파트가 보이는 ‘아파트 공화국’으로 만든 것은 아파트 공간의 건축적 합리성이 아니다. 박정희는 62년 마포아파트 기공식에서 아파트가 “혁명한국의 한 상징”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지만 이러한 바람은 60년대 말 강남개발이 본격화되고 부동산 투기 붐이 조성되면서 실현되었다. 강남개발은 막대한 이익을 창출해 극도로 편향된 부의 배분을 가져와 아파트를 사용가치의 주거공간이 아니라 자산 이득을 얻기 위한 투자대상으로 만들었다. 아파트는 욕망을 해방시키고, 운이 좋으면 한 뭉치 거머쥘 수 있다는 기대를 불어넣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박정희 모더니즘의 기념비(monument)다.

아파트는 나도 너처럼 잘 살고 싶다는 욕망의 민주주의를 유도함으로써 압축성장을 가져온 일등공신이다. 시기심은 다른 이가 차지한 행운에

대한 주체의 박탈감에서 비롯된 분노의 다른 표현, 즉 사회의 부조리와 불평등에 반응하는 주체의 양식이다. 이는 시기심이 정치적 충동과 비판 의식이 잠재된 사회 민주주의적 감정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시기심에 사로잡힌 주체는 타인을 많이 갖기 게임의 경쟁자로 가정하기 때문에 도덕적 행위자가 되지 못하고, 이는 시민사회의 도덕 원리로서 공감의 실패로 이어진다. 시기심은 타인을 선망하고 흉내내는 데 몰두하는 맹목으로 패거리의식을 낳고 취약한 사회집단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 시기심은 수직사회에서 비교의식에 따른 주체의 선망과 좌절 그리고 우울은 불안이나 소외 같은 근대 감정처럼 공론화될 필요가 있다.

시기심이 사회적 약자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감정이라면, 사회자본이 매우 취약한 여성들이 행운을 거머쥔 이에 대한 시기심을 더 고통스럽게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7-80년대에 발표된 박완서의 단편소설은 강남개발 이후 내 집 마련 열풍의 사회적 맥락을 바탕으로, 여성들의 근대 체험의 의미를 포착한다. 소설 속 근대화 여성 1세대들은 살림이나 양육 등 전통적인 여성 역할에 머물지 않고 ‘복부인’, ‘교육엄마’로 가족의 신분이동, 계급이동을 위해 분투함으로써 박정희 체제의 일원이 되었다. 박완서는 개발기 모성의 희생적 위치를 부각시키는 대신 그것의 부도덕성을 까발리는 반(反) 멜로드라마로서 제도적 여성성을 성찰의 대상으로 포착한다.

핵심어 : 아파트, 박정희 모더니즘, 한국 근대화, 시기심, 감정, 여성, 속물 등

## 1. 아파트, 혁명 한국의 기념비

도시의 밤은 붉은 십자가가 걸린 교회와 잘 훈련된 병사처럼 도열한 아파트들의 전시장이다. 교회와 아파트는 결코 어울리지 않은 조합이지만 공히 초월과 구원에 대한 욕망을 드러낸다. 교회당 꼭대기의 빨간 십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객원교수

자가가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다”(윤동주, 「십자가」)는 속죄의식을 통속화한다면, 아파트는 신분이동에 대한 꿈을 드러낸다. 르 코르뷔지에에 의하면 아파트는 ‘거주용 기계’로 정의되는 도구적 주택이다. 유럽에서 최초로 선보인 아파트는 산업혁명 이후 도시로 몰려든 노동자계급을 위해 건설되어 저질 주거의 대명사로 불렸다. 아파트는 무개성과 소외만이 아니라 폭력과 범죄를 연상시키는 불명예였다.<sup>1)</sup> 그러나 이토록 무감동한 콘크리트 더미는 한국에서 중산층적 삶을 상징한다. 온통 농경지뿐인 시골에서조차 우뚝 솟은 아파트는 한국인의 무의식을 웅변한다.<sup>2)</sup> 아파트는 어찌면 한 몫 잡을지 모른다는 기대 혹은 남들보다 뒤쳐지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상이다. 그러므로 아파트는 속화된 신으로 교회와 동급의 위치를 차지한다. 아파트는 단지 주거의 한 유형이 아니라 경제적, 심리적, 문화적 현상이다.

한국이 어디서든지 아파트를 볼 수 있는 ‘아파트 공화국’이 된 이유를 아파트 공간의 건축적 합리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전후 근대화 과정에서 정부는 도시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를 대중적으로 보급하고자 했다. 그러나 58년의 중앙아파트, 62년의 마포아파트는 소형 평수인 탓에 빈곤의 이미지가 강하고 한국인의 전통적인 주생활 양식과 부합하지 않아 대중에게 외면받았다. 대통령 박정희는 62년 마포아파트 기공식에서 아파트가 “혁명한국 한 상징”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지만 이러한 바람은 60년대 중후반 강남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실현될 수 있었다.<sup>3)</sup> 강

1) 발레리 줄레조에 의하면, 서구에서 아파트 단지가 인간적인 측면이 배제된 건설 정책의 실패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에서 아파트 단지는 매우 다른 의미를 갖는다. 발레리 줄레조, 『아파트 공화국: 프랑스 지리학자가 본 한국의 아파트』, 김혜연 역, 후마니타스, 2007, 63쪽.

2) 1930년에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토요다(豊田) 아파트가 처음 선보인 이후, 아파트는 2010년에 이르르면 총 주택 수의 약 60%를 차지할 만큼 한국인의 보편적 주거 양식이 된다.

3) 강남 개발은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심 기능의 분산, 수도방위의 필요성, 개발을 통한 정치 자금 조성 등 공식적, 비공식적인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당시 강남 땅은 논밭투성이의 시골이었지만 서울 도심과의 인접성이 높기 때문에 한강에 다리를

남개발은 경제성장과 함께 도시의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졌지만, 막대한 이익을 창출해 극도로 편향된 부의 배분을 가져와 아파트는 사용가치의 주거공간이 아니라 자산 이득을 얻기 위한 투자대상이 되는 한편으로 문화적 세련의 이미지가 덧붙여져 중산층의 이상적인 거주 양식이 된 것이다.<sup>4)</sup> 아파트는 검약과 절제라는 고전적 덕목 속에 꾀꾀 싸여 있던 욕망을 해방시키고 신분상승을 향한 뜨거운 열망을 넣음으로써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박정희 모더니즘의 기념비, 즉 동원의 한 방식이다.

아파트 공화국의 설계자인 박정희 정권은 공동체 사회에서 그간 부정적으로 여겨졌던 시기심(Envy)<sup>5)</sup>을 신분 이동을 향한 개인의 열정으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감정(emotion) 사용의 멘토였다. 아파트를 향한 욕망의 심층에는 다른 사람이 차지한 행운에 대한 고통스러운 열패감, 즉

놓기만 한다면 개발잠재력이 있다고 기대되었다. 66년 서울시가 반포에서 삼성동에 이르는 800만평의 부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한 후 70년 후반에 이르면 강남, 즉 영동개발부지의 면적은 무려 973만 평으로 확대되기에 이른다. 한양 도성의 두 배가 넘는 광활한 땅은 약 십여년에 걸려 완벽한 현대도시로 탈바꿈하게 된다. 한중수·계용준·강희용, 『강남의 탄생』, 미지북스, 2016, 17~28쪽.

4) 최병두, 『근대적 공간의 한계』, 삼인, 2002, 365~366쪽.

5) 시기심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 똑같이 성공하고 훌륭해지고 싶다는 열망이지만, 타인과 나의 비교 의식에 바탕을 둔 상대적 박탈감과 행운을 누리는 대상을 파괴하고자 하는 감정으로서 일반적인 의미의 ‘동경’과 구별된다. 시기심은 “뒤편 이름 지을 수 없는 악의, 냉혹하고도 은밀한 적의, 이룰 수 없는 열망, 숨겨진 증오와 원한”(조지프 엡스타인, 『시기』, 김시현 역, 민음in, 2007, 32쪽)으로 표현될 만큼 특정 대상에 대한 적대감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질투(jalousy)와 여러 모로 유사해보인다. 그러나 멜라니 클라인에 따르면 질투는 욕망의 대상을 놓고 세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이룬 것, 권력의 지위를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인 시기심과 구별된다(이에 대해서 김영미의 글을 참조할 것). 이 글은 클라인의 정의를 따라 비교에 의한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 그리고 상대가 차지한 재화를 갖고 싶은 심적 현상을 질투가 아니라 시기심으로 칭하되, 시기심이 자신과 무관한 사람이나 불특정 다수를 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폴프 하우블, 『시기심: ‘나’는 시기하지 않는다』, 이미옥 역, 예코 라이브러리, 2009, 7-35쪽; 김영미, 「소비사회와 시기하는 주체」, 『감정의 지도 그리기』 (이명호 외), 소명출판사, 2015, 245쪽.

시기심이 깔려 있다. 그러나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시구처럼 시기심은 자기파괴적 우울에 머물지 않고 나도 너처럼 잘 살고 싶다는 욕망으로 전환될 수 있다. 한국이 짧은 시간동안 사회를 근대화하는 ‘기적’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의 자유를 가로막는 반공독재나 민족주의의 호소력만이 아니라 아파트 공화국이 형성한 ‘마음의 습속’ 때문이다. 이는 송호근이 지적하듯이 한국인의 높은 성취 동기가 근면과 열정 같은 긍정적 가치만이 아니라 합리적 경쟁 기제와 규칙의 결여로 인해 부, 지위, 권력 같은 희소 재화가 불공정하게 분배되는 사회에 대한 실망과 반감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뜻한다.<sup>6)</sup> 실제로 개발독재기는 현대사의 가장 불공정한 시대로, 이렇다 할 정당한 노력없이 불법과 변칙을 통해 부를 거머쥔 졸부들을 탄생시켰다. 그러나 이렇듯 부조리한 현실은 운만 따르면 뭇 잡을 수 있다는 야심을 불어넣을 수 있다. 아파트는 나도 너처럼 잘 살고 싶다는 욕망의 민주주의를 촉발함으로써 압축성장을 가져온 일등공신이다.

버트런트 러셀에 따르면 시기는 정치적 충동과 비판 의식이 잠재된 민주주의적 감정으로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추진력이 될 수 있다.<sup>7)</sup> 시기심은 타인이 소유한 특정한 재화가 아니라 그들이 그러한 재화를 갖도록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불공평함을 느낄 때 발생하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시기심은 계급적 박탈감의 일종으로서 사회의 부조리와 불평등에 대한 비판의식을 내장하고 있다. 이는 왜 프롤레타리아트 계급 혁명이 시기심을 일으킬 요소로서 사적 소유의 철폐를 약속했는가를 암시한다. 그러나 시기심은 비교적 평등한 상황에서도 쉽게 발생한다. 시기심에 사로잡힌 주체는 타인을 많이 갖기 게임의 경쟁자로 가정하기 때문

6) 송호근, 『한국의 평등주의, 그 마음의 습관』, 삼성경제연구소, 2006, 68~69쪽.

7) “현대에는 사회적 지위의 불안정성과 민주주의 및 사회주의가 추창하고 있는 평등주의 이론이 시기심의 대상이 되는 영역을 크게 넓혀놓았다. 시기의 영역을 넓혀놓은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대단이다. 하지만 이것은 보다 공정한 사회 제도에 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참고 견뎌야 하는 대단이다.” 버트런트 러셀, 『행복의 정복』, 이순희 역, 사회평론, 2005, 100쪽.

에 스스로 도덕적 행위자로 정체화하기도 어렵다. 자신의 좌절과 초라함에 대한 고통스러운 인식은 시기 대상이 성취한 재화를 맹목적으로 선망하게 함으로써 사회의 취약한 집단에 대한 공감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인간은 죽지만 시기심은 상속된다”(헤시오도스)는 말처럼 시기심은 거의 모든 시대와 인간에게서 발견되는 보편적 속성임이 분명하다. 욕망 없는 삶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시기심을 특정한 역사발전의 단계에서 주도되고 작동하는 사회문화적인 감정으로 다루지 못함으로써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제도화할 수 없다. 시기심을 구약의 카인이나 특별히 악독한 개인의 자질로 간주해 도덕적으로 단죄해야 하는 추한 감정으로 분류하는데 만족하는 것도 시기심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법이 될 수 없다. 진실을 부인하거나 외면하도록 은밀히 유도함으로써 시기심을 더 깊어지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고통스러운 감정은 자신의 결핍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고, 자기 계발을 통해 극복하려는 식의 요법이나 코칭으로 해결되기도 어렵다. 마음 깊은 곳에 거주하며 주체를 무기력하게 만들거나 때로는 야심을 불리일으키는 시기심은 욕망의 성취와 과시적 인정문화가 확산된 근대의 지배적 감정이자 개발동원체제의 정치 공학이기 때문이다.

비교의식에 따른 주체의 선망과 좌절 그리고 우울의 근저에 자리한 시기심을 불안이나 소외 같은 근대 감정처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간 감정은 여성이나 흑인을 비롯해 주변집단의 특질과 결부되어 설명됨으로써 이성적 주체의 타자가 되어왔다.<sup>8)</sup> 특히 지배 문화는 시기심을 도덕적으로 가치절하하면서 결핍되고 히스테릭한 자아의 감정적 반영물,

8) 이명호, 「감정의 문화정치」, 이명호 외, 『감정의 지도그리기: 근대/후기 근대의 문학과 감정 읽기』, 소명출판사, 2015. 그간 감정은 개인적인 것이고 불확실한 것이기에 엄밀한 지식의 범주가 될 수 없다고 여겨져왔다. 감정 연구는 진화생물학, 인지심리학, 뇌과학 등에 의해 주도됨으로써 탈역사적, 비사회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즉 여성 젠더의 속성으로 만들어왔다.<sup>9)</sup> 신데렐라와 그 자매들의 이야기가 암시하듯이 시기심은 ‘남근’의 결여로 인해 여성이 겪는 곤경으로, 여성이 법과 도덕의 기초인 아버지 질서에 복속되어야 할 이유였다. 시기심은 여성적 성격이라는 관념은 기실 여성혐오 문화의 일종이다.<sup>10)</sup> 그러나 페미니스트들 역시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자매애의 윤리를 강조하면서 여성과 시기심이라는 주제를 부인하고 회피해왔다.<sup>11)</sup> 평등주의에 기초한 근대 사회는 시기심을 조장할 수 있으며, 근대에 들어 인간의 보편적 권리가 선언됨으로써 여성이 사회 속에서 경쟁하게 되었다는 것은 시기심의 격전장에 뛰어들었음을 뜻한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사회자본이 매우 취약한 여성들이 시기심을 더 고통스럽게 경험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시기심은 ‘너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는가’라는 불평등, 부당함에 대한 마음 깊은 곳의 저항이기 때문이다.

이 글이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개발독재기 박완서의 단편 소설을 다시 선택한 것은, 그녀만큼 시기심의 맹렬하면서도 공허한 속성과 그 물질적 기원을 문제적으로 포착한 작가가 없다는 단순한 사실 때문이다. 그녀는 개발기 치열한 신분상승의 각축전 속에서 중산층이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여성의 근대 체험의 의미를 묻는다. 특히 강남개발 이후 내 집 마련 열풍 속에서 아파트를 한국의 여성들이 최초로 획득한 근대적 공간으로 포착하는 한편으로 아파트의 모방적 성격을 통해 이상적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열망이 어떻게 왜곡되고,

9) Sianne Ngai, *Ugly Feelings*, Cambridge: Harvard UP, 2005, pp.128~129.

10) 진화생물학에 따르면, 시기심은 생물학적 종으로서 여성보다 남성들에게서 자주 발견되는 감정이다. 데이비드 바래시는 남녀 양성 간의 생물학적 차이, 즉 난자는 희귀하며, 정자는 “작고 값싸며 그야말로 무한정 공급”된다는 불변의 사실은 남성성을 불안으로 내몰고 이는 질투로 현상한다고 분석한다.(데이비드 바래시·나넬 바래시, 『오셀로, 그리고 성남 남자들』, 『보바리의 남자, 오셀로의 여자』, 사이언스 북스, 2008, 36~41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심의 젠더가 여성으로 간주되는 것은 젠더에 대한 편견이 그만큼 강하거나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기에 시기심이 유별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11) 이에 대해서는 김영미의 글을 참고할 것. 앞의 글, 247쪽.

결국 여성의 소외로 귀착되는가를 보여준다. 아파트는 근대화가 개인의 질적 차이 혹은 주체성을 소거하는 동질화/획일화 과정으로서 식민지기부터 근대여성들이 갈망했던 ‘자기만의 방’은 아니었던 것이다. 박완서는 그간 한강의 기적과 같은 큰 담론에 가려져 주목되지 않았던 일상 혹은 가정영역을 중심으로 아파트를 모방적 경쟁을 부추기는 시기심의 증폭기관으로 그려내는 한편으로 급격한 속물화 과정의 민낯을 들추어냄으로써 부끄러움을 유도한다. 이는 시기심은 인간의 보편적 감정이나 특정 젠더의 고유한 속성으로 치부할 수 없는 ‘맥락적’ 속성을 지닌다는 점을 암시한다. 시기심은 욕망을 규제해오던 종교적, 도덕적 담론들이 무력해지고 신분상승이 격화된 사회에서 근대 주체가 세계와 교섭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이는 일견 무심하게 볼 수 있는 사물과 사소한 감정들을 비판적 성찰의 대상으로 끌어올림으로써 궁극적으로 근대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가능하다는 점을 뜻한다.<sup>12)</sup>

## 2. 근대성과 젠더: 속물 엄마의 신분이동 이야기

통속적 이해관계와 외부의 압력에 맞서 내면의 진실성을 확보하는 개인은 근대 시민사회 형성의 필수요소이지만, 한국 근대화는 돈과 권력을 최고로 아는 속물적 개인주의의 부상을 저지하지 못했다. 한국인의 속물근성은 전쟁과 그 상처를 애도하지 못한 채 진행된 근대화의 부산물이다.<sup>13)</sup> 6·25 전쟁은 이념전이었지만 되레 부조리한 세상에 복수하는 길

12) 게오르그 짐멜은 19세기의 대도시인들에게서 특유하게 발견되는 ‘둔감함’ 혹은 ‘냉정함’에 주목하고, 그러한 영혼의 심적 상태가 사물의 질적 차이가 사라진 데 따른 마비 증세로, 대도시 안에 침투된 화폐경제가 개인이 정서에 미친 결과임을 분석함으로써 객관문화에 맞서 주관문화를 활성화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연구는 감정을 인간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라 성찰성을 지닌 인간의 주체적 행동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게오르그 짐멜, 『대도시와 정신적 삶』,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김덕영·윤미애 역, 새물결, 2005, 35~53쪽.

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는 식으로 생존을 도덕의 알리바이로 만들고, 전후 근대의 전체주의적 성격은 “사회의 불의에 무기력하고 사회적 이슈에 무관심한 개인”<sup>14)</sup>을 등장시켰기 때문이다. 더욱이 개발기는 중산층적 삶을 실현하기 위한 치열한 각축전이 시작되는 한편으로 사회의 재화들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못함으로써 성공한 이들에 대한 시기심과 모방경쟁이 부추겨져 속물주의를 팽창시켰다. 강남 바람과 함께 불어온 아파트 열풍은 전전기 생존형 속물을 지워 경쟁을 벌이는 문화적 속물로 전환시킨 역사의 결절점이다.

개발은 단순히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하는 국토의 개발전략에 머물지 않은 인간 개조 사업이었다. 도시 중산층 계급 육성이라는 정부의 정책이 실행되어 사회 전체의 쇄신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의 극적 성격은 전후 가정 영역으로 되돌아가 모성과 주부 규범에 묶여 있던 여성이 신분이동이라는 심원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뛰어들게 된 데서 드러난다. 낸시 에이블먼은 사회이동에 관한 통계는 “남성의 공식적인 생산활동만을 기록하고, 남성 가구주의 생산 활동 범주에 가구의 계급위치를 집어넣는” 식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여성의 취업, 여성이 주도하는 비급여 형태의 소득, 기타 상징적 기여 등을 외면하는 등 여성이 신분이동에 어떻게 기여하는가에 관해 침묵한다고 비판한다.<sup>15)</sup> 이를 테면, 우리는

13) 박완서의 소설에서는 전쟁 기에 총맞아 죽은 오빠의 ‘꼴깍 삼켜진 죽음’ 모티프가 반복해 등장한다. 좌익 성향의 지식인인 오빠의 죽음은 전후 근대화가 자율적 결정에 따라 삶을 꾸려가는 진정성 주체의 추방 혹은 소멸 위에 전개되었음을 암시한다. 오빠는 남북이 대치한 전시 하에서는 슬픔이 흥건해지기도 전에 매장되고, 전후에는 분단체제가 들어섬에 따라 회상조차 금지된, 즉 애도가 거부된 역사의 타자이다.

14) 한국전쟁과 전후 국가재건은 반공주의와 결합함으로써 정치적 행위주체로서 시민을 형성하지 못하고, 생존과 자기보존을 그약스럽게 추구하는 탐욕스러운 개인을 양산했다. 소영현, 『전쟁 경험의 역사화, 한국 사회의 속물화-형그리 정신과 시민 사회의 불가능성』, 『한국학연구』 32집, 2014, 292~3쪽.

15) 낸시 에이블먼, 『사회이동과 계급, 그 멜로드라마 - 미국 인류학자가 만난 한국 여성들의 이야기』, 강신표·박찬희 역, 일조각, 2014, 41쪽. 낸시 에이블먼은 개발독재기를 거대한 사회변동기로 보고, 근대화 일세대 여성들에 대한 구술 인터뷰를

전업주부의 노동을 가족의 재생산을 위한 가사노동으로 한정짓고, 여성성을 정서적 가치와 결부짓는 데 익숙하다. 이는 가족과 모성을 비물질화, 탈역사화하는 것으로 현실의 여성들이 가족의 물질적 생활 수준과 문화 정체성 형성에 작용하면서 신분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는 사실을 은폐한다. 한강의 기적 뒤에는 욕심과 능력으로 비공식 영역에서 신분경쟁을 위해 분투한 억척스러운 주부들이 있었던 것이다.

『세모』(1970)는 강남개발이 본격화된 시기를 배경으로 화폐가치와 상품 논리가 사회 전체에 만연해가는 양상을 포착하는 한편으로 개발이 평범한 개인의 삶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 이야기한다. ‘나’는 자식들에게 수업료를 제때 주지 못해 아침마다 한 폭의 지옥을 경험할 만큼 가난한 엄마였지만, 서울시 전체가 들썩이는 개발의 과정에서 “사람 구실도 부모 구실도 돈이 다 시키는 거나 진배없”(10쪽)는 화폐의 ‘유열(愉悅)’을 경험한다. 내 집을 갖겠다는 일념으로 서울 번두리에 산 채마밭 딸린 초가집의 땅값이 몇 차례 치솟고, 강남바람과 함께 허허벌판에 하나 둘 커다란 정원이 딸린 주택들이 들어서면서 고급주택가가 조성된 것이다. 개발의 기적은 운택해진 살림이 아니라 대졸 출신의 공무원인 남편을 고급 식료품상을 운영하는 “철두철미한 이악한 장사꾼”(13쪽)으로 변모시켰다는 것이다. 남편은 역자(譯者)에도 이름을 못 올릴 번역으로 적은 봉급을 보충하던 것 외에 수완이라고는 없던 고지식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행운은 계속되어 식료품 가게가 개발의 바람과 함께 호황을 이루자 ‘나’는 남편과 함께 밤마다 “얼마나 남았을까? 이익 말예요, 이익.”(18쪽)이라고 외치며 숲에서 알밤을 줍는 재미 따위에 비견할 수 없는 돈 세는 열락을 경험한다. 나와 남편은 이익이 삶의 모토인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가 된 것이다.

토대로 여성들이 신분이동에 깊이 개입되어 있음을 밝힌다. 여기서 근대화 1세대는 유소년기에 해방을 겪고, 5-60년대에 결혼해 아이를 낳아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 자녀양육과 부의 축적에 열을 올린 오늘의 노년세대로, 박완서 소설의 주인공들의 생애 이력과 일치한다.

‘나’의 변화는 두둑한 화폐자본을 밀천 삼아 신분상승의 경쟁에 뛰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는 딸만 내리 넷을 둔 후 어렵게 얻은 아들 인수를 낚은 푸울(pool)과 잘 다듬어진 잔디가 깔린 수익자 부담의 고급 사립 학교에 진학시키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듯 교육을 신분이동을 원활하게 줄 재화로써 포착하는 민첩한 행위는 복수심이라는 감정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부제에다 한 반에 백 명씩 끌어넣는 치사스러운 의무 교육의 공립 학교”(21쪽)라는 서술은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한다. “치사스러운 의무 교육”이라는 표현은 공립학교의 열악한 교육 환경에 대한 비판의식만이 아니라 서민적인 것에 대한 혐오와 수치심조차 암시한다. 세모의 화려한 거리에서 핸드백에 두둑이 현금을 채운 ‘나’가 “문득 잘사는 여러 친구들의 이름을 아무런 아픔 없이 구구단처럼 암송할 수도 있어진다.”(13쪽)라고 고백하는 것도 속물적 행위의 이면에 타인에 대한 비교의식에서 비롯된 열등감, 즉 시기심이 작동하고 있음을 뜻한다. 내가 남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선물은 “우리도 이만큼 살게 됐으니 다신 신세 안 지겠습니까.”(12쪽)라고 잘라 말하는 데서 드러나듯이 계급적 격차에서 비롯된 원한, 즉 시기심은 신분상승의 욕망을 부추기는 동력이다.

이는 계층적 지위와 인간의 가치를 동급에 놓는 속물 사회화가 이미 깊숙이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자 속물성이 상호 간 인정지평이 협소한 한국 사회의 문법임을 암시한다.<sup>16)</sup> 실제로 ‘나’는 이미 과거가 되었음에도 자녀들의 수업 참관일이면 돈을 걷는 자모를 피해 도망다니던 모멸의 순간과, 엄마가 “와이로” 한 폰도 안 써서 겨울 내내 난롯가 가까이 한 번 앉아보지 못하게 했다는 딸의 비난어린 말을 생생히 기억한다. 이렇게 볼 때 인수가 다니는 명문사립학교의 오렌지빛 교복은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럽게 자기의 우월적 지위를 확인시켜주는 속물성 재화(snob

16) 한국인의 속물근성을 타인을 짓밟고 살아남아야 하는 생존 이데올로기와 돈과 권력이 삶의 유일한 가치라는 편협한 사회적 인정지평 간의 악순환으로 조명한 논문으로 다음의 글을 참고할 것. 장은주, 「상처 입은 삶의 빛나간 인정투쟁」, 『사회비평』 통권 39호, 나남출판사, 2008, 14~34쪽.

goods)이지만, 심리적으로는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좋은 것을 누리고 싶다는 동일성 욕구의 표현인 밴드웨건 재화(bandwagon goods)<sup>17)</sup>이다. “딴 사람들은 공무원질을 해서도 얼마만큼 잘살더라는 얘기를 신들린 것처럼”(15쪽) 남편을 쏘아댔다는 ‘나’의 고백은 극심한 박탈감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복수심의 한 양상이든 타자에 대한 모방이든, 성장의 과실이 실질적으로 분배됨에 따라 시기심은 막강한 화폐자본과 상품논리로 무장한 채 신분경쟁에 나선 중산층 계급의 감정적 양식이 된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나’를 사로잡은 시기심의 여성적 성격이다. 전통적으로 시기심, 즉 욕망은 칠거지악(七去之惡)에 속할 만큼 여성에게 강력한 금지의 대상이었다면 개발기는 이 오래된 유교적 부덕의 규범을 무력화시켰다. 개발기 여성의 이상으로 떠오른 ‘능부(能婦)’는 사실상 ‘욕심’과 ‘능력’으로 가난이라는 운명을 개척함으로써 유교적 부계 질서를 무너뜨린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근면, 계획, 계산의 힘으로 자기의 운명을 개척한 실용적, 합리적, 경제적 인간임이 분명하지만, 자기만의 방식으로 삶을 개척하는 독창적 개인이 되지 못했을 뿐더러, 시민으로서 여성의 권리를 향유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되레 여성을 가족의 신분상승을 위한 대리자로 전략시킴으로써 가부장제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 역설적 결과마저 가져왔기 때문이다.<sup>18)</sup> 이러한 점을 의식한 듯 작가는 ‘나’와 같은 주변부 계급을 따돌리며, 닳은 꼴의 욕망인 양 밍크목도리를 두르고 담임 선생님

17) 일반적으로 속물성 재화는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기 않기 때문에 갖고 싶어지는 재화로, 특이라고 고가이며 균중으로부터 돋보이고 싶은 욕구를 채워지는 재화를 말한다면, 밴드웨건 재화는 다른 사람이 이미 가졌기 때문에 나도 갖고 싶어지는 재화를 뜻한다. 로버트 스킨스키·에드워드 스킨스키,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 김명화 역, 부키, 2013, 80쪽.

18) 근대는 명령과 관습에 묶여있던 전근대의 공동체사회와 결별하고, 주어진 사회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개인의 자유를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천명했다. 이렇듯 자기의 손으로 운명을 바꾸어가는 주체로서 근대적 개인이 됨으로써 인간이 경험한 가장 강렬한 감정은 아마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성공하고자 하는 열망 혹은 경쟁심으로서 시기심일 것이다. 츠베탕 토도로프·베르나르 포크롤·로베르 르그로 공저, 『개인의 탄생』, 전성자 역, 예크리, 2000, 112~164쪽.

을 차지하기 위해 상호 경쟁을 벌이는 교육엄마들을 각자의 개별적 얼굴이 부재한 기괴한 모습으로 묘사한다.<sup>19)</sup>

박완서는 가족을 위해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 주부를 속물 엄마로 명명함으로써 모성의 도구화를 비판한다. 여성의 희생적 위치를 부각시키기는 숭고한 엄마가 아니라 모성의 부도덕성, 외설성을 까발리는 안티 펠로 드라마를 통해 타락을 성찰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성들은 위계화의 욕망 속에서 사회의 공공재를 사유화하고, 이웃을 따돌리는 ‘복부인’, ‘교육엄마’로 재현된다.<sup>20)</sup> 「낙토(樂土)의 아이들 (1978)은 강남으로 짐작되는 가상의 공간인 무릉시를 배경으로 부동산 투기 과열 현상을 그린다. 대학강사인 ‘나’의 아내는 부동산 업자가 준 정보를 바탕으로 시장가치가 전혀 없어 보이는 허허벌판의 아파트를 몇 채씩 분양받아 값을 되올려 파는 ‘복부인’이다. 특히 그녀는 교육이라는 공공재를 지역 간 경제적 불균형을 야기하는 차별의 고리로 사유화하기 위해 이른바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교육 엄마’이다. 무릉시를 성장의 과실을 독점한 중핵 지대로 특권화하기 위해 학교와 긴밀한 파트너 관계 속에서 무릉국민학교를 명문 학교로 부상시키기 위해 가난한 아이들을 내모는 등 다양한 전략을 짜기 때문이다.<sup>21)</sup> 수재학교인 무릉국민학교에서는 “완전한 학습”과 “완벽한 질서”를

19) ‘나’는 인수에게만은 계급적 모멸감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듯 자신의 아들을 더 사랑해달라는 뜻으로 선생님에게 선물을 전달하고자 한다. 그러나 ‘나’의 계획은 한결같이 돈 봉투를 들고 밍크 목도리를 두른 채 선생님을 포위한 교육엄마들에 의해 가로막힌다. ‘나’는 돈의 남루함에 환멸하는 한편으로 밍크 목도리 엄마들이 구축한 “난공불락의 성새(城塞)”(27쪽)를 뚫지 못하고 인수에게 남루하고 모멸적인 삶을 물려주게 될까 두려워한다.

20) 개발기 중산층 여성들은 과잉개발과 이득 쟁탈전에 뛰어드는 한편으로, 주로 주택과 교육 분야에서 계층화의 3대 요소라고 할 재산, 지위, 권력의 불공정한 분배 과정에 개입해 계층 간 격차를 벌이는 역할을 했다. 계층화의 3대 요소의 부정 분배에 대해서는 송호근의 글을 참고할 것. 앞의 책, 50쪽.

21) 이 소설은 강남의 땅값 상승에 기여한 정부의 ‘강남 8학군 정책’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 보인다. 개발 초기 강남은 독자적인 생활기반이 극히 부족하고 강북 의존적인 베드타운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강남 8학군’ 조성을 비롯해 정부의 강북 억제, 강남 개발의 정책이 실효를 거둬으로써 1980년대 이후 서울의 성장의 과실을 독점하는 핵심 공간으로 자리잡게 된다. 김백영, 「서울, 은자의 고도에

내세워 ‘왜’라는 의문을 제거하고 주입식 교습법을 실행한다는 점은 교육엄마들이 교육을 성찰적 시민의 탄생을 돕는 계몽 수단이 아니라 현재적·세속적 가치에 함몰된 속물을 양산하는 데 적극 개입하고 있음을 암시한다.<sup>22)</sup>

그러나 박완서는 사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여성의 유독한 행위의 이면에 사회 전체에 만연한 시기심이 존재하고 있음을 꼬집는다. 「서글픈 순방(巡房)」(1975)에서 집 없는 서민 가정의 가장은 신문을 보고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어. 사람들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게 잘살게 되거든. 젠장, 우리만 빼놓고 말야.”(339쪽)라고 탄식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이는 날마다 줄부가 탄생하는 발전의 도시 서울이 다른 사람의 행운이 나에게 불행이 되는 시기심을 증폭시키는 격정의 공간임을 암시한다. 서민 남자는 모두가 축제를 벌이고 있지만 자신만 초대받지 못한 채 문밖에 선 듯 배제되고 뒤쳐진 듯한 시기심으로 풀이 죽은 것이다. “젠장 우리만 빼놓고 말야”는 탄식은 자기파괴적 우울의 징후조차 풍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남자의 탄식은 여성에게 죄책감을 안겨준다. 아내는 죄책감이라는 불합리한 감정 앞에서 자신이 스스로를 위해 계란 후라이 한 장 해먹은 적 없다고 항변하지만, 남편의 좌절이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아 자꾸만 기가 죽는다.

이는 개발기 공공의 적으로 떠오른 ‘복부인’이 현모양처 혹은 능부 이데올로기가 과잉 수행된 결과임을 암시한다. 실제로 소설 속 서민 남자는 누구는 아내의 살림 덕에 집을 장만하고, 누구는 아내가 시집을 때 사온 아파트가 맨션이 되었으며, 누구는 아내가 게 요야 노릇으로 사둔 땅값이 뛰어 일부자가 되었다는 구구한 소식을 읊어대며 내 집 마련의 책임을 아내에게 지우기 때문이다. ‘복부인’은 현모양처의 현실적 버전인 것이다.

서 세계도시로,」, 도시사학회 기획, 『도시는 역사다, 2011, 서해문집, 30-31쪽.

22) 본래 ‘교육’은 인간정신의 계몽을 유도해, 법률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동등성 실현의 수단으로 발견되었다. 마르키 드 콩도르세, 『인간정신의 진보를 위한 역사적 개요』, 장세룡 역, 책세상, 2002, 120쪽.

그러나 복부인 담론은 서울이 과잉도시화함으로써 발생한 주택난이 주는 피로감과 집 가진 이에 대한 시기심을 여성의 죄로 전가함으로써 감정적 쾌락을 안겨주는 정치 공학이라는 점도 사유되어야 한다. 실제 강남개발로 부동산 투기 붐이 형성되어 가장 큰 이익을 거머쥔 것은 정권과 재벌이었음에도<sup>23)</sup>, 주택 문제의 책임을 여성들의 분별없는 시기심과 탐욕, 즉 개인의 도덕성 차원에 위치시킴으로써 사회에 대한 반발감을 무마시키는 여성혐오담론이다. 여성을 “건전한 사회를 좀먹고” “국민적 화합을 헤치는” ‘악’으로 낙인찍게 되면 주거문제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공적이고 정치적인 의제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sup>24)</sup>

### 3. 삶을 균질화하는 아파트와 로열 박스 속의 여자들

아파트가 중산층의 주거 양식이 된 것은 ‘근대’, ‘최신’ 등의 수식어를 통해 문화적으로 세련된 이미지가 덧붙여지기도 했지만 여성 소비자를 매혹했기 때문이다. 아파트 광고가 주로 여성 모델을 통해 소비자에게 행복의 환상을 주입하듯이 아파트는 풍요, 평등한 가족, 자아 실현, 핵가족, 현대성 등 추상적 가치를 표상하는 여성적 페티시의 대상이다.<sup>25)</sup> 실제로

23) 70년 1월에 서울시 도시계획과장 윤진우는 강남구의 땅을 높은 곳에서 흘러나온 정치자금으로 사 모으고 땅값이 어느 정도 상승하면 되파는 식으로 이익을 남기며 청와대 정치자금을 조성했다. 땅 투기를 통해 구축된 돈은 3-4공화국의 정치자금으로 사용되는 한편으로 초기 투자 비용을 지불한 기업에 돌아가 몇몇 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었다. 한중수·계용준·강희용, 앞의 책, 207~214쪽.

24) 1970년대 후반의 부동산 가격 상승, 정부의 주택정책의 실패, 경제 불안정성의 원인을 복부인들의 행동에서 찾고 이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담론적 효과에 대한 분석은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것. 이은지, 「한국에서 주택 담론의 역사적 변화: 1970~2000년대 신문기사를 통해 본 ‘내집마련’ 담론」,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113~117쪽.

25) 또한 아파트는 아버지의 공간을 축소하는 한편으로, 전통 가옥의 부엌이 다른 공간과 차단되어 가족원들로부터 여성을 고립되게 한 데 반해 부엌을 실내로 들어오게 해 가정의 중심공간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함인희는 근대에 들어 부엌일은

아파트 공간의 매우 기능적으로 짜인 구조는 입식부엌을 들여 살림을 간소화하고 난방을 신경 쓰지 않게 하는 한편으로 잠금 기능만으로 쉽게 외출이 가능케 함으로써 여성에게 자유를 주었다. 또한 마당이나 텃밭 등 여유 공간이 전혀 없고 집의 각 영역들이 고정되어 있는 공간적 특징은 일가친척이나 식모 등 ‘외부인’의 침입을 차단시킴으로써 핵가족의 이상을 실현하고 여성을 살림과 양육의 전문가로 만들었다. 비록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동 시기 남성작가들이 종종 아파트를 남성성 상실이나 가부장제에 대한 위협으로 비유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아파트는 여성적 공간의 성격이 강하다.<sup>26)</sup>

「넓은 방들 (1974)은 근대화기 아파트의 인기를 짐작하게 한다. 주택 구매 자금을 모으기 위해 친정살이 중인 ‘나’는 “불편한 거라곤 아무것도 없”(228쪽)음에도 아파트로 분가하려고 한다. “남의 집 내막을 알아내서 풍기고 흥을 보는 선수들”로 둘러싸인 구(久)동네와 달리 아파트의 “이웃과 차단된 독립성”(232쪽)은 부모, 이웃 등 전근대의 ‘후견인’들로부터 벗어나게 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나의 이러한 선택을 친정엄마는 아파트 범죄의 가능성을 내세워 말리지만, 울케는 독립성을 이유로 편든다. 아파트에 대한 나의 호감은 현모양처라는 가부장제의 여성성 이상이 여성을 매혹적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내가 아파트를 선택한 이유는 차임벨을 누르는 남편의 “경도(硬度) 높은 쇠붙이처럼 단단하고 냉혹해”(229쪽) 보이는 모습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을 처가살이를 하는 남자의 위축된 남성성으로 하고 남편에게 과거의 “부드럽고

여성이 단독으로 해야 하는 일로 바뀌는 등 가족원들의 공동노동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주택의 현대화”에 대한 복합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함인희, 『부엌의 문화사』, 살림, 2005.

26) 이청준, 이동하, 최인호 등 개발독재기 남성 작가들은 아파트를 남성 주체가 수컷다움을 상실한 공간으로 은유함으로써 아파트 공간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한 예로 이청준은 「거룩한 밤」(원제: 「불알 깬 마을의 밤」, 《뿌리 깊은 나무》 77년 11월)은 정관 수술을 받은 남성에게 입주우선권을 주는 정책을 풍자하듯 아파트를 거세된 남자들의 무덤으로 그려내는 가족 내 남성의 축소된 위상을 가시화한다. 아파트는 관리되는 자아, 남성성 상실의 공간으로 은유된다.



따뜻하고 좀 슬픈 듯한 얼굴”을 되찾아주고 싶은 것이다. 이는 내가 가정 영역과 여성성을 돌봄과 치유와 연결지어 사유하고, 아파트를 여성성을 실현할 이상적 공간으로 상상하고 있음을 뜻한다.

근대문명의 한 양상으로서 산업화는 일터와 가정이 애매하게 겹쳐있던 중세와 달리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분리시키고, 남자와 여자를 각 영역의 전담자로 위치시킴으로써 동반자였던 부부관계를 해체시켰다. 이로써 공적 영역에서 경제활동을 담당하는 남자에게는 계산성, 합리성이 요구되는 한편으로, 사적영역에서 집을 가꾸고 소비할 뿐 아니라 양육 등 돌봄노동을 담당하는 여성에게는 정서적 치유자로서의 자질이 요구되기 시작한다.<sup>27)</sup> 이는 쇠붙이를 연상시킬만큼 냉혹해 보이는 남편의 얼굴은 산업사회의 차가운 생리 속에서 생존 노동에 참여하는 남성들이 겪는 정신적 피로와 인간성 상실의 징후임을 뜻한다. 처가의 차임뿔을 누르는 남편은 기죽어 있기는커녕 당당하다는 사실은 나의 짐작이 오인(誤認)임을 뜻한다. 그러나 남편의 진실이 무엇이든지 간에 아파트 공간에 대한 나의 기대는 쉽게 실현될 것처럼 보인다. 두 세대의 현관문이 마주 보는 18평 계단식 아파트의 이웃인 철이네는 어여쁜 동화 속인 양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어 근대적 가정의 이상에 도달할 수 있을 듯한 환상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나는 철이 엄마를 아파트 생활의 안내자로 여기고 그녀의 인테리어 요리법 등을 흉내낸다. 내가 욕망의 주체라면, 철이 엄마는 이상적 가정 혹은 이상적 주부의 꿈에 다가가게 할 욕망의 증개자인 것이다.

그러나 나의 철이 엄마에 대한 모방의 범주가 넓어지고 학습 수준이 높아져 원본과 모방본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가 똑같아지면서 나는 나의 쌍둥이 아이들을 구별하는 엄마의 직관마저 잃어버릴 정도로 혼란에 빠진다. 이러한 병리적 증상은 철이 엄마의 악의적인 의도가 아니라 아파트

27) 산업사회가 고안해 낸 사생활은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집을 가꾸고 소비하며, 부부는 집에 자신들의 내밀한 사적 공간을 확보하고 출산과 양육을 통해 핵가족을 구성하는 것이다. 앤소니 기든스, 『현대 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배은경·황정미 역, 새물결, 1996.

의 평준화된 삶이 강요된 결과이다. 나는 철이 엄마를 따라 이웃에 마실을 다니며 “비슷한 여편네들이 비슷한 형편의 살림을 하고 있”으며 “우리 방과 철이네 방이 닮은 것 만큼 우리의 상하좌우의 방들은 닮아 있”(236쪽)는 기괴한 진실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이는 아파트가 세련된 문화 공간이 아니라 근대적 개인의 행동원칙이라고 할 자율성, 독립성, 유일성 같은 자질들이 몰수된 기능적 공간임을 뜻한다. 아파트는 “철저히 기능적으로 짜인 집합적 주거 기계의 관리체계”, 즉 노동의 기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삶을 합리화한 공간으로서, 거기에서는 가족의 세속적 행복과 부의 축적만이 우선되기 때문에 이웃이나 공동체에 대한 깊은 연대감이 싹트기는 거의 불가능하다.<sup>28)</sup>

나와 철이 엄마가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아지자 서로의 관계가 시기/중오의 양상을 띠는 것은 시기심이 여성적 본성이어서가 아니라 아파트 공간의 경쟁적 성격 때문이다. 이는 아파트가 이웃 간 유대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서로를 향한 시기심, 즉 욕망을 불타오르게 하는 공간임을 뜻한다. 아파트가 비슷한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가진 이들이 모여사는 집합 공간이라는 점은 상호 간 경쟁심을 더욱 불타오르게 한다. 아파트는 두터운 벽으로 타인을 차단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타인의 응시에 노출된 공간으로서 상호비교를 통해 서로를 흉내냄으로써 획일화된 삶을 강제하는 경쟁체제인 것이다. ‘나’와 철이 엄마는 이웃이지만 서로에 대한 연대감을 갖지 못한 채 서로의 행복을 건주는 공허한 경쟁에 몰두함으로써 비슷해진 것이다.

박완서는 충격적인 결말을 통해 성장 기계로서 아파트가 강요하는 닮은 꼴의 삶으로부터 탈주를 기획한다. 나는 성적 욕망이 아니라 순전히 철이 엄마에 대한 시기심으로 그녀의 “짐승같은 새끼”와 간음을 저지른다. 그러나 철이 엄마의 남편은 나의 남편과 마찬가지로 “쇠붙이에서 풍

28) 김백영에 의하면 아파트는 마을과 공동체의 탈개인화된 규범과 비경제적 가치가 소멸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함으로써 개개인을 이웃이나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고립시켜 원자화한 한국 경제의 양적 성장주의가 이룩한 공간이다. 앞의 글, 33쪽.

기는 것 같은, 사람을 밀어내는 기분 나쁜 냄새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신경질적이고 허약한 주제에 가학적”(247쪽)인 남자에 불과하다는 님은 꼴의 진실에 도달한다. 흥미로운 것은 나는 간음을 저질렀음에도 “이상하리만큼 해맑고 절망적인 기분으로 나를 처녀처럼 느낀다”(248쪽)는 것이다. 이러한 도착(倒錯)적인 감정은 간음의 치부를 감추려는 작위 이거나 성해방에 대한 신념과 무관한 것으로, 산업화가 강요하는 판옵티콘으로부터 벗어나 길들여지지 않은 본래의 자기로 돌아가고 싶다는 열망의 표현이다. “절망적인 무구(無垢)를 풍기는 여자”라는 역설적 표현은 순결, 도덕성 같은 중산층 여성성의 핵심적 자질들을 폭파하려는 광기어린 욕망마저 암시한다.

다소 추상적이고 낭만적인 결론으로도 보이지만 “나나 철이 얼마나 탄방 여자들이나 남보다 잘살기 위해, 그러나 결과적으론 겨우 남과 닮기 위해 하루하루를 잃어버렸다”(237쪽)는 발건은 중산층 여성문제에 대한 예리한 시각을 보여준다. 전업주부들은 중산층적 삶을 유지시켜주는 가족 중심의 제도나 가족 이데올로기로부터 일정하게 혜택을 누리는 한편으로 근본적으로는 자기 나름의 주체적 삶을 봉쇄당하는 이중적인 상태에 위치해 있다<sup>29)</sup>는 점에서 모방적 삶에서 비롯된 공허감은 여성적 실존의 감정이기 때문이다. 「닦은 방들」, 「포말의 집」 등 중산층의 주거공간으로 아파트를 배경으로 한 여러 소설들은 남편이나 자녀들과 도구적인 관계를 맺는 한편으로 앞서 본 여러 작품들처럼 진정한 자기를 찾지 못한 여성의 고립감을 주체화한다. 중산층 여성들 간의 경쟁 문화는 시기심이 여성적 성격이 아니라 근대성의 가부장성으로 야기된 것임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 근대화의 이념 속에 여성들의 자유와 권리는 포함되지 않았음을 뜻한다.<sup>30)</sup>

29) 김영희, 「근대 체함과 여성성: 박완서, 김인숙, 공선옥의 소설」, 『창작과 비평』 89, 1995, 81쪽.

30) 캐럴 페이트먼은 서양의 근대를 정초한 자유, 평등, 우에 가운데 우에=형제제가 본질적으로 가부장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형제제의 이상 속에 여성 형제들의 자유

「주말농장」(1973)은 A여대의 동창생들이자 인근 사립 초등학교이며 결정적으로 같은 아파트의 주민인 여성 커뮤니티의 시골 야유회 소동을 통해 인생의 절대적 목표나 가치(value)가 사라지고 상대적인 효용과 만족만이 남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들이 벌이는 덧없는 경쟁을 그린다. 이들은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진 상류그룹이지만, 바로 그러한 사실로 인해 채워질 수 없는 욕구 속에서 표류한다. 욕구는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비교에서 생겨나는 것이므로 충족의 선을 그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단을 증명하듯이 이들은 전화기를 통해 서로의 소식을 전해 듣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전화는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엿탐해 자기의 삶을 타인의 그것에 비취봄으로써 지위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촉매제로 작용한다. 자신들이 전화기와 전화선을 타고 흘러다니는 소문의 꼭두각시가 된 듯한 의혹에 사로잡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 소설은 대졸 출신의 엘리트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인생의 목표나 방향을 갖지 못한 채 속물재화를 위시로 인정투쟁을 벌이는 여성들의 혐오스러운 행태에 담긴 공허를 들추어낸다. 이들이 주말농장을 구입하기 위한 사전 답사 차원에서 준비한 시골야유회를 앞두고 상대보다 더 멋진 수영복을 준비하는 과정은 혐오를 유발한다. 수영복은 아무나 쉽게 구할 수 없는 수입품으로서 자신이 상대보다 더 나은 취향의 소유자이고 또 부자임을 증명해줄 수 있는 속물재화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듯 무의미한 열정은 이들이 희소한 지식인 여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독창적인 삶의 자유를 획득하지 못했음을 뜻한다. 특히 이들 자신이 욕망하는 주체라기보다는 계급적 지위와 고급 문화적 취향을 과시하기 위해 스스로를 상품 혹은 재산인 양 전시한다는 점은 상류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객관적 사실과 무관하게 이들의 비루한 위치성을 폭로한다. 타인의 시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외국제 수영복과 잘 관리된 날씬한 몸은 이들이 인

와 권리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캐럴 페이트먼, 『남과 여, 은폐된 성적 계약』, 이충훈·유영근 역, 이후, 2001, 100쪽.

정투쟁의 주체로만 환원될 수 없는 대상의 성격을 띠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여섯 여자들이 욕망의 주체가 아니라 지위 경쟁을 위한 재산 혹은 상품임은 결정적으로 그녀들의 몸을 향한 시골 남자 만득의 관음증적 시선을 통해서 가시화된다. 만득은 도시를 향한 뜨거운 동경으로 농촌을 떠났지만 서울 살이에 좌절한 후 낙향한 시골 남자로, 개울에서 반라(半裸)의 차림으로 수영을 하는 중산층 여자들의 몸을 욕망과 혐오가 뒤섞인 감정 속에서 훑쳐본다. 도시 여자들의 요란한 시골 놀이는 만득에게 자기파괴적 시기심의 고통을 안겨준다. 그것은 지역균형개발의 구호가 무색한 극심한 지역 차별과 불균등 개발의 양상 속에서 농촌/지역의 파국 혹은 소외를 경험하고 목도한 주변부 남성의 도시 혹은 한국 근대화에 대한 분노 속에 담긴 시기심을 암시한다. 여자들은 “그가 그렇게 갈망했을 뿐 한 번도 실제로 잡아보지는 못했던, 끝내 화려한 신기루에 불과했던”(136쪽) 도시라는 서술은 중산층 여성들이 근대 주체가 아니라 도시 중간층 계급의 우월적 지위를 보여주는 표상 혹은 재산 목록의 일부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로열 박스』(1982)는 아파트는 부계 권력에 대한 복종을 유도하는 훈육 기계, 즉 욕망의 중앙집권적 체제의 일부이며, 여성들은 가부장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마치 성에 갇힌 공주인 양 로열박스 속에서 고립된 채 자기를 상실 중인 중산층 여성을 보여준다. 이는 아파트가 여성들이 근대적 개인주의를 성취한 공간이 아니라 가부장에 대한 복종이 유도하는 권력의 상징질서임을 뜻한다. 실제로 한국을 ‘아파트 공화국’으로 만든 것은 군인 대통령인 박정희의 주택건설 작전이었다. 무개성한 사각형의 몸체가 줄 간격을 유지하며 도열한 모습은 거대한 병영국가와 병사로서의 국민성을 은유한다. 군사주의 문화는 수치를 벗어나는 길은 상급자의 명령을 복기하고 수행하는 것임을 주지시키기에 가부장적이다. 아파트는 권력을 자동적으로 선명하게 만들고, 진급하기 위해서라면 권력에 복종하고 그것을 모방할 것을 가르치는 상징 질서이다. 아파트는 단일함과 서

열화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중앙집권적 권력과 부계권력이 수행되는 장소인 것이다.<sup>31)</sup> 아파트의 대중화와 함께 아파트의 생활 양식은 일상을 통해 점진적으로 전파되었다. 혁명이 기존의 사회관계 속에 갇혀있던 주체의 의식을 쇠신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파트는 주체의 감정구조를 변모시키면서 사회시스템과 조응하도록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sup>32)</sup> 그것은 사람들을 각각 빨빨이 고립시키면서 서로를 선망-시기하는 경쟁자로 인지하게 함으로써 저항이 불가능하도록 주체를 파편화한 정치적 통치술의 한 방식이다. 이렇듯 아파트 공화국 속에서 여성들은 산업역군으로 호명되어 기적적 경제성장을 위해 분투하는 남성들을 보조해, 아이를 교육시켜 학력 자본을 쟁취하고, 절약 혹은 투기로 아파트 평수를 늘리며 오늘날 한국의 가족과 중산층 문화의 성격을 만들어낸 것이다.

#### 4. 맺음말

구유럽의 정치가인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개인의 행복을 보장하는 신대륙의 제도와 문물 그리고 광활한 영토와 풍부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의 이마 위에 드리워 수시로 빗방울을 뿌려대는 ‘검은 구름’에 주목한 바 있다. 이방인의 눈으로 본 미국인은 매순간 지금 소유하고 있는 좋은 것들 이외에 다른 것들을 동경하느라 불안하게 동요하는 기괴한 존재였다. 토크빌은 비록 ‘눈썹 위의 검은 구름’을 ‘시기심’이라고 명명하지

31) 실제로 잦은 외침(畏鍼)의 역사 속에서 간도나 해삼위로 떠돌고, 해방과 전란의 내상에 시달리던 남성들에게 아버지의 권위를 부여한 것은 고가의 아파트였다. 아파트는 소문 속에서도 존재하던 부권을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만들었다. 아파트는 이념의 아버지를 현실의 아버지로 전환시켰다. 이러한 신분상승의 과정에서 여성들은 직장생활에 바쁜 남편을 대신해 복덕방을 순례하고 아파트 청약을 도맡았음으로써 가부장의 권력을 현실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다. 박해천, 『아파트 게임』, 휴머니스트, 2013, 22~23쪽.

32) 오창은, 『아파트 공간에 대한 문화적 저항과 수락-박완서의 「맑은 방들」과 이동하의 「홍소」를 중심으로』, 『어문론집』 33, 2005, 163~164쪽.

않았다. 그러나 자신보다 더 많은 행복을 누리는 타인에 대한 시샘어린 의식이 없다면 영혼이 불안에 사로잡힐 까닭이 없을 것이다.<sup>33)</sup> 이는 근대사회가 고정된 신분질서를 해체해 평등해진 개인들을 상호비교의 인정 투쟁으로 몰아넣었음을 뜻한다. “문지기는 문지기를 시기하고, 장인(匠人)은 장인을 시기하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를 시기하며, 악공은 악공을 시기한다”<sup>34)</sup>는 말처럼 시기심은 비교적 동질적인 집단 사이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탁월한 재능을 가진 이가 아니라 자기보다 나은 이, 즉 경쟁자와의 차이가 작을수록 커진다.

개발독재기는 전세기보다 더 심원하게 사회 전체를 쇠신했다. 한국인들은 사회변화와 속도전을 겪으면서 도시에서 살기 시작했고, 이익을 좇는 ‘경제적 인간’이 되었다. 무엇보다 한국인이 강도 높은 노동착취마저 견디며 비약적인 경제 성장의 이론 근거에는 타인의 성취에 대한 선망과 시기심이 감정이 깔려 있다. 시기심은 평등주의적 감정으로 월등한 존재들을 준거집단으로 삼아 자신과의 거리를 좁히고자 하는 열망이다. 이렇듯 성공을 향한 강한 열망과 자신감은 강남개발과 성장기제로서 아파트의 대중적 보급이라는 사건이 있었기에 커질 수 있었다. 아파트는 “인간을 보관만 해주는 곳이 아니라 욕망이 타오르게끔 관리해주는 곳”<sup>35)</sup>으로 한국 근대화의 감정적 동력이 된 것이다. 그러나 아파트는 경제적 성장주의의 산물로서 한국인을 전투와도 같은 생존경쟁의 장으로 내몰고, 획일화된 삶과 공동체와의 연대가 끊어진 원자적 개인주의의 확산이라는 한국 근대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준다.

박완서는 그녀 자신의 표현을 빌면 “영문도 모르고 최전방에 이끌려 나온 쫓병”이자 “날개 쪽지 밑에 핏자욱이 선연한 어미새”로 박정희 모더니즘의 일원이 된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러나 그녀들은 무거운 희생자가 아니라 계층 간 격차를 벌이기 위해 이웃을 따돌리는 ‘복부

33) 알렉시스 드 토크빌, 『미국의 민주주의』, 임효선 역, 한길사, 2009.

34) 볼테르, 『철학사전』, 사이에 역, 민음사, 2015, 250쪽.

35) 강준만, 『강남, 낯선 대한민국의 자화상』, 인물과 사상사, 2006, 329쪽.

인’, ‘교육엄마’, 즉 속물이라는 점에서 송고의 멜로 드라마와 거리가 멀다. 박완서의 등장으로 문학사는 출세와 성공의 욕망으로 신분상승을 위해 분투하는 성인여성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성녀와 탕녀 그리고 히스테리적 여성이라는 문학사의 여성에 대한 상투적 유형화의 도식을 깨는 한편으로 현실의 여성들의 삶에 좀더 깊이 다가가는 계기를 만들었다. 특히 그녀는 주로 중산층 여성들의 욕망에 대한 날카로운 해부를 통해 여성들이 보편적 권리를 가진 근대적 개인이 아니라 이상적인 가정을 표상하는 장식적 존재이자, 도구적 모성으로 전락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성찰적 여성 주체의 탄생을 촉구한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박완서, 『어떤 날들이 - 박완서 단편소설 전집 1』, 문학동네, 1999.

박완서, 『조그만 체험기 - 박완서 단편소설 전집 2』, 문학동네, 1999.

박완서, 『아저씨의 훈장 - 박완서 단편소설 전집 3』, 문학동네, 1999.

박완서, 『해산바가지 - 박완서 단편소설 전집 4』, 문학동네, 1999.

박완서, 『가는 비, 이슬 비 - 박완서 단편소설 전집 5』, 문학동네, 1999.

### 2. 논문

김백영, 「서울, 은자의 고도에서 세계도시로」, 『도시는 역사다』(도시사학회 기획), 서해문집, 2011, 30~31쪽.

김영미, 「소비사회와 시기하는 주체」, 『감정의 지도 그리기』(이명호 외), 소명출판사, 2015, 245쪽.

김영희, 「근대 체험과 여성성: 박완서, 김인숙, 공선옥의 소설」, 『창작과 비평』 89, 1995, 69~92쪽.

소영현, 「전쟁 경험의 역사화, 한국 사회의 속물화-형그리 정신과 시민사회

- 의 불가능성, 『한국학연구』 32집, 2014, 273~313쪽.
- 오창은, 「아파트 공간에 대한 문화적 저항과 수락-박완서의 「맑은 방들」과 이동하의 「홍소」를 중심으로」, 『어문론집』 33, 2005, 163~190쪽.
- 이명호, 「감정의 문화정치」, 『감정의 지도그리기: 근대/후기 근대의 문학과 감정 읽기』(이명호 외지음), 소명출판사, 2015,
- 이은지, 「한국에서 주택 담론의 역사적 변화: 1970~2000년대 신문기사를 통해 본 '내집마련' 담론」,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113~117쪽.
- 이청준, 불알 깬 마을의 밤, 《뿌리 깊은 나무》 77년 11월, 뿌리깊은 나무.
- 장은주, 「상처 입은 삶의 빛나간 인정투쟁」, 『사회비평』 통권 39호, 2008, 남출판사, 14~34쪽.
- 게오르그 짐멜, 「대도시와 정신적 삶」,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김덕영 · 윤미애 역, 새물결, 2005, 35~53쪽.
- 데이비드 바래시 · 나넬 바래시, 「오셀로, 그리고 성남 남자들」, 『보바리의 남자, 오셀로의 여자』, 사이언스북스, 2008, 36~41쪽.
3. 단행본
- 강준만, 『강남, 낯선 대한민국의 자화상』, 인물과 사상사, 2006, 329쪽.
- 박해천, 『아파트 게임』, 휴머니스트, 2013, 22~23쪽.
- 송호근, 『한국의 평등주의, 그 마음의 습관』, 삼성경제연구소, 2006, 50쪽.
- 전상인, 『아파트에 미치다』, 이숲, 2009, 21~24쪽.
- 최병두, 『근대적 공간의 한계』, 삼인, 2002, 365~366쪽.
- 한중수 · 계용준 · 강희용, 『강남의 탄생』, 미지북스, 2016, 17~28쪽.
- 함인희, 『부역의 문화사』, 살림, 2005, 54~62쪽.
- 낸시 에이블먼, 『사회이동과 계급, 그 멜로드라마 - 미국 인류학자가 만난 한국 여성들의 이야기』, 강신표 · 박찬희 역, 일조각, 2014, 41쪽.
- 로버트 스킨스키 · 에드워드 스킨스키,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 김병화 역, 부키, 2013, 80쪽.

- 롤프 하우블, 『시기심: '나'는 시기하지 않는다』, 이미옥 역, 에코 라이브러리, 2009, 7~35쪽.
- 마르키 드 콩도르세, 『인간정신의 진보를 위한 역사적 개요』, 장세룡 역, 책세상, 2002, 120쪽.
- 발레리 줄레조, 『아파트 공화국: 프랑스 지리학자가 본 한국의 아파트』, 길혜연 역, 후마니타스, 2007, 63쪽.
- 버트런트 러셀, 『행복의 정복』, 이순희 역, 사회평론, 2005, 100쪽.
- 볼테르, 『철학사전』, 사이에 역, 민음사, 2015, 250쪽.
-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김재홍 · 강상진 · 이창우 역, 길, 2011, 181~206쪽.
- 알렉시스 드 토크빌, 『미국의 민주주의』, 임효선 역, 한길사, 2009, 111쪽.
- 줄리엣 미첼, 『동기간: 성과 폭력』, 이성민 역, 도서출판b, 2015, 110쪽.
- 조지프 엡스타인, 『시기』, 김시현 역, 민음in, 2007, 32쪽.
- 츠베탕 토도로프 · 베르나르 포크롤 · 로베르 르그로 공저, 『개인의 탄생』, 전성자 역, 에크리, 2000, 112~164쪽.
- 캐럴 페이트먼, 『남과 여, 은폐된 성적 계약』, 이충훈 · 유영근 역, 이후, 2001, 100쪽.
- Sianne Ngai, *Ugly Feelings*, Cambridge: Harvard UP, 2005, pp.128~9.

**Abstract****The Apartment's Republic and the Democracy of Envy**

: Park Wan Suh's novel during dictatorial era of development

Kim, Eun-Ha

In Korea, apartment is not only a type of housing but also economic and psychological phenomenon. What Korea was made 'the apartment republic' is not architectural rationality of apartment space. Park Chung Hee said that apartment could become 'a symbol of revolutionary Korea' in ground-breaking ceremony of Mapo apartment in 1962, but the desire was realized in the end of 1960 when the development of Gangnam started and property boom was made up. The development of Gangnam created an enormous profit so that extremely biased distribution of wealth happened, furthermore, it made apartment become an investment target for getting asset gains, not residential space. Apartment liberated desire. It was a monument of Park Chung Hee that worked marvels of Hangang instilling expectation of a good fortune into people, which one might get huge money.

Apartment was a best contributor in compressed growth, leading people into the democracy of desire that every one would like to live well like you. Envy is another representation of anger that starts from emotion of loss for the fortune that other people took, namely it is a form of the subject that reacts to social irregularities and unfair. This implies that envy could be social democratic due east that has potentially political impulse and criticism. The subject,

however, who is taken by envy, may think others as a rival for a game of having a lot, so he/she couldn't be a moral agent, and then this leads to failure of sympathy as ethical principle for civil society.

Envy is blindness that dedicates to envy others and to imitate, so it makes the gangster sense and could be discrimination against vulnerable social groups. It could be said that we need to bring to the table depression like modern emotion such as insecurity and alienation, because envy leads people into the subject's wish, frustration and depression following comparison between people in vertical society. If envy is a remarkable emotion of second-class citizens, there is a strong possibility that poor women may experience more painful envy towards one that has a fortune.

Park Wans Suh's short stories in the 7-80s caught women's modern experiences based on social contexts of the trend of my home after developing Gangnam. The 1st generation of modernized women in the novel didn't stay in the traditional female role, became a member of Park Chung Hee's modernism as striving for class mobility. Park Wan Suh captured institutional femininity for self-examination as anti-melodrama that exposed maternal instinct's immorality during development time, instead of stressing maternal instinct's sacrifice.

Key words : Apartment, Park Jung-hee's Mdemism, Mdernization of Krea, Envy, Emotion, Woman, Snob etc

■ 본 논문은 2016년 11월 12일에 접수되어 2016년 11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6년 12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